



전시를 열며 Prologue

우리가 알고 있는 '완주'는 1935년 생으로 올해 85살입니다. 그러나 '완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완주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2,100여년 전 대륙의 선진문화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한반도 금속기술의 선구자이기도 했으며, 한 때는 전북 지역 마한사람들의 중심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또한 견훤왕과 함께 다시 한번 삼한통일의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완주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완주라는 이름의 뜻처럼 온전히 완주의 역사와 완주다움을 만들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시를 관람 하시면서 완주'의 역사를 천천히 완주'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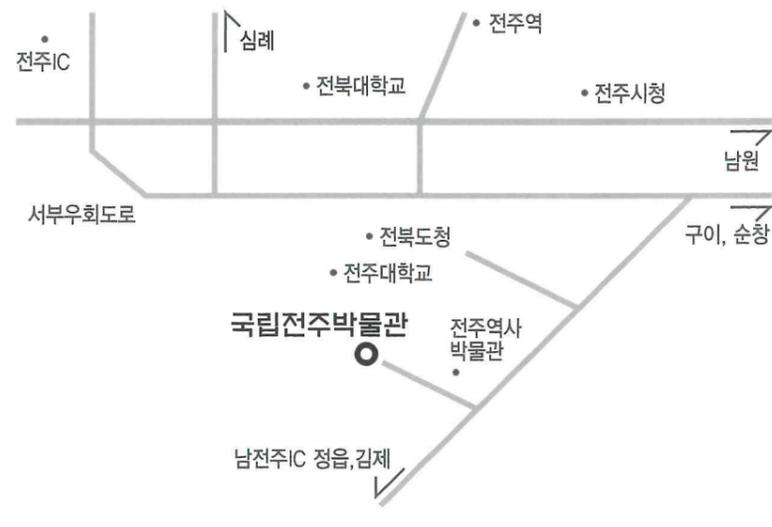
Wanju as we know it today was established in 1935, marking its eighty-fifth anniversary this year. However, people had been living in the area long before it was designated as Wanju.

These people in Wanju became pioneers of metalworking on the Korean Peninsula by embracing advanced culture from Dongbei of China over 2,100 years ago. At one time, they were central figures among the Mahan people in Jeollabuk-do Province and the pride of their culture.

Moreover, the people of Wanju later aspired to unify the Three Hans under King Gyeon Hwon. They have faithfully played the protagonist or in supporting roles throughout Korean history.

This exhibition recounts the story of the people of Wanju as they established the history of the area and cultivated the distinctiveness reflected in the name Wanju, which literally means preserved county. We hope this exhibiti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leisurely enjoy the history of Wanju, a county preserving the legacy of Jeollabuk-do Province.

오시는 길



시내버스 금구 방면 차량 이용
9, 31, 49, 62, 354, 554, 559, 644, 684, 685, 814

택 시 전주역에서 약 30분,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약 20분 거리

고속국도 남전주IC 및 서전주IC 약 15분 거리

전북의 역사문물전 13
The 13th Anniversary of the Exhibition of Cultural Relics of Jeollabuk-do

오로지 오롯한 고을 산주

Wanju, Continuing the Legacy of Jeollabuk-do

국립전주박물관

[5507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썩고개로 249 (효자동 2가 900)
http://jeonju.museum.go.kr Tel. 063)223-5651~2 Fax. 063)223-5653

오로지 오롯한 고을

산주

Wanju, Continuing the Legacy of Jeollabuk-do

2019. 06. 18. TUE
09. 15. SUN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